

# 天才성과 과학의 생활화



崔 凡 棲  
〈作 家〉

대부분의 사람들은 첨단과학기술의 시대에 살면서도 그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조차도 잘 모르거나 도외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학문적 차원에서의 과학은 專門學徒의 책임 소재로 돌리더라도 일반적인 개념상의 과학은 누구나 상식선의 울타리나마 넘나들 수 있는 지적 충족의 상황이 이루어져 있는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은 일반상식에 비해 너무나 처져 있는 감이 없지 않다.

흔히들 과학의 생활화를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막상 생활자체는 과학과는 거리가 먼 전근대의 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저 막연한 추상개념으로 과학은 발전적 생활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정도이다.

어느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세계 적으로 위대한 인물 다섯을 고르라고 했더니 그 가운데 조선 세종 때의 과학자 장영실이 당당히 끼어 있었다고 한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믿음직한 새싹들의 꿈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조금만 물려서서 생각해 보면 그 인물 설정에 얼마나 허구성이 많은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우리 학부모치고 자녀를 과학자로 만들고 싶지 않은 부모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평소에 부모들이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위대한 과학자였다는 것을 그 인물선정은 암암리에 증명해준 셈이다.

과학이 생활화되어 있는 선진국에서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위대한 인물설정을 해 보았다 라도 과학자가 다섯손가락 안에 끼일 수도 있겠으나 그들이 꿈는 과학자는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아마 도전의 대상이 아닐까 하고 얼핏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 장영실 처럼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다고 말했을 지라도 거기에는 다분히 선망의 마음이 진하게 회석되어 있었을 것

이다. 여기서 선진국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싶은 것은 선진국의 교육은 이미 과학이 생활화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는 아직도 일반적으로 과학의 인식이란 면에서 선진국 대열과는 다소 격차가 있지 않은가 여겨진다. 따라서 「응용」이란 선진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과학은 무조건 어려운 학문이라고 천재성을 강조할 때 그 학문은 어떻게 될까? 우리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과학자를 바라는 것도 그 천재성을 머릿속에 그리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어린이들이 책을 선택하는 선호도에도 천재성이 개재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우수한 과학도서를 출판해 내어도 다른 분야의 도서에 비해 판매량이 훨씬 뒤진다. 특히 이웃 일본의 과학도서 출판실태와 비교해 보면 과학기술 수준의 차이 만큼이나 그 격차가 엄청나다.

이런 현상은 학부모의 책임도 크게 작용한다. 자기 자녀를 과학자로 만들고는 싶지만,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또 천재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싹수가 보이지 않으니 그만 두는게 낫겠다는 부모의 사고방식이 아이에게 과학 도서를 권장할 기회를 놓치고, 게다가 부모 자신이 흥미가 없어 그런 도서와는 아예 담을 쌓고 말아 책임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애초에 토양이 마련되어야 할 과학의 생활화는 그 시작부터 싹이 부러지거나 아예 트지 못하고 말아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자들에게만 의존하는 과학입국을 자칭하고 있거나 않은지 걱정스럽다.

선진조국은 과학입국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과학의 생활화는 필연적인데도 주위의 형편은 그렇지 못하여 몹시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물론 우리는 우수한 과학기술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과학도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전문적인 연구개발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의 생활화라는 면에서는

그 역할이 직접적이지 못하다고 하겠다.

어쩌면 이따금씩 TV에 소개되는 무명발명가의 피나는 노력과 쓰라린 고통속에서 일반적인 과학의 생활화를 더 기대해 봄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무명 발명가들의 확산은 에디슨의 소년적인 싹수(알을 품고 있었다는)와 비교되어 커다란 용기와 끈기의 산실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무명 발명가들이 수없이 많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과학입국으로 성장할 바탕을 마련했다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다.

그 무명 발명가들은 자녀들이 과학기술자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손에 의하여 그 토양이 비옥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과학토양은 어떤가?

일년에 몇번 언론기관이나 공공단체의 과학경진대회 등등의 행사 때에는 깜찍하고 훌륭한 어린이들의 작품이 쏟아져 나와 어른들을 깜짝 놀라게 하지만 그런 행사가 끝나면 그만이다.

이토록 우리는 과학을 높은 학문으로 모셔놓고 두려워하고 천재성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과학의 생활화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은 아닐런지.

자녀들과 함께 풀 한포기, 곤충 한마리 관찰하면서 과학은 콜롬부스의 달걀처럼 알고 나면 쉽고 재미있다는 어버이들의 저변확대가 이루어질 때 과학의 생활화는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

따라서 과학의 생활화는 선진조국의 지름길이므로 무명 발명가에게도, 어린 과학도에게도 긴 안목으로 국가는 투자하고 가꿔야 할 때다.

10월 상달,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는 종합 2위의 성적을 올리고 온 국민이 축제무드에 빠져 있다. 스포츠도 과학적인 기술과 연습이 없었으면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스포츠에 투자하듯 과학의 생활화를 위해 눈을 돌려야 하겠다. 육체만 건강하고 머리가 텅 빈 매머드 국가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